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재현



우리 사회는 요즘 미국 슈퍼볼의 영웅 하인스 워드 신드롬에 빠져 있다. 하인스 워드는 한국계 흑인 혼혈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땅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 미식축구(NFL)의 슈퍼스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29년 전 그를 밀쳐냈던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돌아 온 사실에 국민은 감격해 하고 있다. 게다가 늘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을 맺는 그의 효심은 우리를 숙연케 할 정도다.

희망과共存 일깨워

하인스 워드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과 감명을 불러 일으켰다. 불우했던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꿈을 이룬 워드의 불굴의 투지는 자라나는 세대와 수많은 혼혈인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또 마치 조선시대의 효자가 살아 돌아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의 효

심은 '효(孝)는 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어머니가 곧 나의 힘이다."라고 한 그의 말은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하인스 워드가 남긴 것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은 겸손하고도 서민적인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단란을 만들어 자신과 같은 불우한 혼혈인을 돕겠다는 그의 정신은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에 '공존(共存)'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렇듯 외국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고 금의환향한 인물도 수없이 많았지만 하인스 워드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인스 워드 모자(母子)의 방한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가장 큰 화두는

'혼혈인' 문제다. 국내 혼혈인은 주한미군-한국 여성 사이의 '혼혈 1세대'를 시작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 나라를 찾은 동남아 남성-한국 여성 사이의 '혼혈 2세대', 한국 남성과 농촌에 시집 온 동남아 여성 사이의 소위 '코시안(Kosian)'이라 불리는 '혼혈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혼혈인은 현재 3만5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혼혈 3세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농촌 지역 총각의 35.9%가 외국인인 신부도 맞닿을 정도다.

하지만, 혼혈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고 국민은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오히려 '단일민족'이라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 이들을 차별하고 배척했다. "사람 취급도 안 해 준다"는 한 외국인 여성의 절규는 우리 사회의 이민족에 대한 폐쇄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피부색 쇄국주의 깨야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부와 일자리, 더 좋은 환경과 결혼 상대자를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사는 지구촌시대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가 고착되면서 각 인종이 섞여 살아가야 하는 다인종 사회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다.

따라서 단일민족이라는 맹목적 폐쇄성에 사로잡혀 혼혈인에 대한 포용성과 개방성을 키우지 않고 서는 이 같은 세계화 시대에 홀로서는 어렵다.

하인스 워드의 성공 스토리에만 매몰돼 서는 안 된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려 있는 국내의 또 다른 혼혈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인스 워드는 오늘 떠난다. 그러나 그가 방한기간 중 남긴 행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게 하고 있다.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시설

韓美 FTA, 국론분열로 가선 안된다

내년 3월, 늦어도 6월까지를 타결시 미국의 51번째 주로 예측된다니 하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가 하면, 한덕수 부총리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여당의 속도조절론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금융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미국 금융서비스의 한국 상륙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정태인 전 비서관의 폭로가 아니라도 한미 FTA가 다른 국가들과의 FTA협상과정과 비교해 서두르는듯 쫓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공청회조차 안거친 협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 경제 10위국 답게 산업별 부분별 이해득실 분석과 함께 취약분야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박·IT제품 수출효과론에 밀려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권내 진보주의자들이 들고나서 한미 FTA가 제2의 을사

늑약이냐니, 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로 예측된다니 하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가 하면, 한덕수 부총리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여당의 속도조절론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금융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미국 금융서비스의 한국 상륙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정태인 전 비서관의 폭로가 아니라도 한미 FTA가 다른 국가들과의 FTA협상과정과 비교해 서두르는듯 쫓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공청회조차 안거친 협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 경제 10위국 답게 산업별 부분별 이해득실 분석과 함께 취약분야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박·IT제품 수출효과론에 밀려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黃沙제앙, 국제공조로 최소화해야

봄의 불청객 황사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최악의 황사가 지난 주말 전국을 뒤덮는데 이어 앞으로 두 세차례 이같은 황사가 더 있을 것이라니 심히 걱정스럽다. 매년 제주도의 2배에 가까운 중국 북사내륙지방이 사막으로 바뀌면서 황사피해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번의 황사현상으로 카드뮴·납과 같은 각종 인체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황토입자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매년 황사로 180여만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항공정비기체 전자 등 각종 산업피해를 합하면 연간 7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균용 레이더 가동에 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가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태풍이나 지진 못지 않는 재앙이다.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조강화가 시급하다. 수년 전부터 한·중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내몽골(內蒙古) 등 중국 초원지역 복원에 나섰다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란 주말 전국을 뒤덮는데 이어 앞으로 두 세차례 이같은 황사가 더 있을 것이라니 심히 걱정스럽다. 매년 제주도의 2배에 가까운 중국 북사내륙지방이 사막으로 바뀌면서 황사피해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번의 황사현상으로 카드뮴·납과 같은 각종 인체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황토입자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매년 황사로 180여만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항공정비기체 전자 등 각종 산업피해를 합하면 연간 7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균용 레이더 가동에 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가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태풍이나 지진 못지 않는 재앙이다.

無等鼓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구조가 심해지면서 '일 중독'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생겨나고 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깨어있는 동안 잠시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견딜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건강을 위한 운동시간마저도 '일' 때문에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실제 한 지식포털이 한 국내의 기업 재직 셀러리맨 대상 운동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중 63.9%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중 '직장 일이 많아 운동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응답자가 36.6%로 수위를 차지, 이런 현상을 반증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일 중독은 직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정설. 컬럼비아대 코렌 교수가 자기 수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하루 3시간씩 벌면 1년에 1천95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 그 시간만큼 유용하게 쓰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는 7주 만에 포기했다. 건강

증이 심해지고, 작업중 졸음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하기 위해 자는 시간, 노는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게 요즘이다. 사람에게 따라 다르지만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 베르거는 일 중독증 환자를 3단계로 구분했다. 1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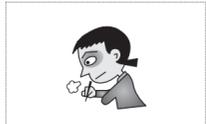
계는 집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 2단계는 자기가 일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여가와 취미·봉사활동에 매달리는 사람, 3단계는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밤낮없이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일 중독을 직장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엔 인식이 바뀌었다.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조직의 인화도 갠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듯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일 중독



은펜칼럼

류동훈



지하철이 개통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천만원의 적자운영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하철의 재정부담은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넘어 오게 될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도로 상황을 보면 너도나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은 마비가 되어 있고, 쏟아내는 매연가스는 우리 도시를 오염시키고 있다.

광주시의 지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는 41만5천대로, 이 중 승용차는 71.2%이다. 또,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7.5%의 높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100년 후 광주의 미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은 적자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장래로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라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사람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편리한 지하철이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지하철 시민서포터즈단을 만들어 지하철의 적자를 줄여가자.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 만으로도 서로 존경하는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시민서포터즈 '수호천사'

는 어떻게 될까. 주차장 공간은 도로, 승차기초차 힘든 오염된 공기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 확실하며, 후손들은 그런 도시에서 지하철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지하철을 탈 때면 서동요의 한 장면을 생각한다. 목나수 박사가 발견한 청동항로에 이런 신적(신의약속)이 써여있었다. "과오로 낳은 자식이 왕이 될 지어다." 위덕왕이 법도를 어기고 부친의 제사날 동침을 하여, 태어난 아이가 서동이다. 위덕왕은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서동어머니와 서동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서동이 백성들 틈에서 자라게 되며,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알게 되어 나중에 오히려 훌륭한 왕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으로 YMCA·YWCA·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장애이촌연합회·광주노인회·광주전남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지하철 서포터즈 Metro Angel(지하철수호천사)을 4월 28일에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향기는 미래에 광주를 상징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후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광주를 생각하며 Metro Angel에 동참하여 과오로 낳은 지하철을 왕으로 만들어 전국을 감동시킬 대중교통의 기적을 만들어서 역사 속에 승리자로 당당히 남도록 하자.

〈사)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처장 2006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도로에 가래 침 뱉는 행위 없어져야

길을 걸다가 '크악'하는 소리를 내며 가래가 섞인 침을 뱉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또 먹은 음식을 토해내는 사람들로 인해 아침엔 화장장이나 상무지구 등 유흥가 거리를 지나다니기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

▲김근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장실이 있는데, 왜 길거리에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집 입구에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잖나. 또 가래침을 뱉을 때 휴지나 화장지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에 가래나 침을 뱉는 사람은 반성해야 한다.

기고

신재선



느슨해진 불철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을 잘못 적재한 탓에 화물이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차량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화물 적재를 잘못하여 낙하물이 발생하였을 때 부피가 작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 사실도 모른채 그냥 지나가 버리겠지만 뒤에 오는 차량들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급제동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차량 적재함 박스화해야

또 일부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컨테이너와 차량받침대 사이에 고정핀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로 차량 전복시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한 일일겠지만, 타인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건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했 경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물건을 떨어뜨린 해당 운전자에게 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 차량 적재함의 박스화'가

필수적이다. 화물차 적재함의 박스화는 운송·보관 단위의 표준화를 통해 화물을 일정하게 단위화하는 일관 수송체계를 가늠케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화물 차량의 박스화를 의무화 한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박스화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예전보다 화물을 많이 실지 못해 당장

의 손실도 있겠으나, 운전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화물도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또 타인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화물차량 적재함 박스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다.

그러나 질서를 포함한 교통 문화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화물차량 적재함의 박스화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도로공사 합평지사장〉

독자마당

독자만화

주의보



▲김이환·충북 청원군 옥산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